

# 망각제를 알고 먹는 사람에게 망각제는 소용 없다

수리아의 검-III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사막의 세 머리 용 (12)

남카네 집을 나온 무니와 난다는 칸타카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점점 어두워지던 밤이었고, 남카도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카는 새벽에 있었던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거 같았다. 총장은 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난다가 자신들을 태우고 갔던 말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인 것이 다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용을 해치웠다는 걸 믿긴 믿는 거겠지. 우릴 다시 안 잡아갈걸 보면 말이야.”

무니가 물었다.

“우리를 보낸 곳에 불이 나는 걸 봤을 테니까. 거기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믿든 안 믿든 다시 붙잡아줄 생각은 안 들걸.”

“그런가. 그런데 말이야. 너 남카에게 준 거, 약효 확실한 거야?”

“또 의심한다. 내가 해독에 약해서 그렇지 그런 건 전문이라고!”

난다가 발끈하며 말했다. 무니는 그런 난다의 모습을 어쩔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허죽 웃었다.

“뭐야. 너 왜 웃어?”

“아니야. 아니야. 그나저나 남카가 그걸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쓰게 될 지 아닐 지 궁금 하다. 모두가 두려움의 시간을 있고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녀석만은 그렇지 못하 다면 그거 좀 너무하잖아.”

무니는 아마 그게 더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난 아무 것도 모르겠다.”

무니가 한숨처럼 내뿜은 말이였다. 그건 난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망각제인 것을 알고 먹는 사람에게 망각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약이였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카에게 자신이 제조한 약을 건네면서도 분명히 말해주었다. 선택은 남카 몫이라고 말이다. 어쩌면 그런 것을 주지 말았어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잘한 일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난다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펼쳐냈다.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아!” 하더니 무니에게 말했다.

“그 꼬마는? 아까까지 옆에서 걷고 있었잖아?”

“뒤에. 자고 있어.”

무니가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소녀는 잠든 채 말 위에 엮여져 있었다. 달빛이 비친 투명한 얼굴은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다.

“언제 말에 탔지?”

무니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난다가 말했다.

“그런데 저렇게 자면 떨어지지 않을까?”

“완전 붙어어. 나중에 안 떨어질까 걱정될 정도야.”



삽화 · 권홍인

그런데 재 계속 데리고 다닐 거야?”

“당분간은 어쩔 수 없잖아. 저렇게 지쳐있는 걸.”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먹은 것 없이 힘만 썼잖아. 그런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가서 지도책 좀 보고.”

무니는 또 “책이나?” 라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그런데 말이야. 아무래도 연금술사가 맘에 걸려.”

집에도 없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사람이 연금술사라고? 주정뱅이에 거짓말쟁이 같다면?”

“그렇긴 하지만.”

난다는 어쩔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무니가 갑자기 “칸타카!”라고 외치며 뛰어가기 시작하자, 찜찜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했다. 저 멀리서 칸타카 역시 그들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난다는 환하게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런데 칸타카와 만나기로 한 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저건 누구지?” 마치 긴 그림자 같이 서 있는 사람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난다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큰 키와 진동하는 술 냄새, 바로 연금술사였다. 그는 자기 집에서 가져간 책들을 돌려받기 위해 그들을 기다렸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난다는 그 자리에서 책을 꺼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의 책보다 아이들의 다른 물건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 등불을 들고 내려다보고 있는 연금술사의 표정에는 분명 어떤 욕심이 드러나 있었다. 그런 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던 난다는 연금술사의 눈이 그들이 사막에서 주웠던 검에 가서 멈추는 듯하자 주의를 돌린 목적으로 말을 걸었다.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연금술사. 우리 집에도 들어와 봤잖아? 그러는 너흰 이름이 뭐냐?”

“전 난다고, 쟀 무니예요.”

“저기 말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여자애는?”

“그냥 지나가다 주운 꼬마예요. 그나저나 아저씨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연금술사는 싱글거리며 말했다.

“이야기했잖아. 연금술사라고 말이야.”

“그럼 연금술사가 이름이라는 건가요?”

“이 세상에 연금술사는 나 하나뿐이야. 굳이 다른 이름이 필요하겠니?”

여전히 미소를 띤 연금술사가 반문했다. 그 순간 난다는 또 헛갈렸다. 그의 집에서 보았던 태양과 달 문양은 분명 할아버지의 공책이나 화덕에 있었던 연금술사의 상징이 맞았다. 다만 지하에 꽂혀있던 책의 절반 이상이 수증기나 화학과 물리학 책으로, 딱 봐도 사람을 속이는 데나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이었으며, 그의 실험실 어디를 봐도 그가 금을 만들어내려 시도하고 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세상에 한 명 뿐인 연금술사 사이겠는가. 하지만 당당히 자신이 연금술사라고 말하는 지금 그의 태도는 또 전혀 거짓 같지가 않다. 아저씨는 어린 난다였다.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이런 저런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여전히 서툰 구석이 있었다. 난다는 복잡해진 머리로 다시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공책이 보이지 않았다! 난다는 큰 목소리로 무니를 불렀다.

“왜?”

난다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 칸타카를 부둥켜안고 놓고 있던 무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너 할아버지 공책 못 봤어?”

“못 봤는데? 없어졌어?”

그제야 무니가 난다를 향해 달려왔다. 난다는 망연한 표정으로 그런 무니를 쳐다봤다. 그러다 문득 의심스러운 듯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혹시 아저씨가 가지고 간 거 아니예요?”

“맞아. 당신이 가지고 갔지? 당신이 계속 우리 가방을 가지고 있었잖아.”

무니와 난다가 동시에 연금술사를 추궁하듯 쳐다

봤다. 연금술사는 아이들의 시선에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직접 보지 않았니? 너

희 짐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있었다는 걸.”

그 말에 난다는 다시 멍해졌다. 무니는 여전히 연금술사에게서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고 말했다.

“난다, 너 그 공책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사흘 전 즈음. 하지만 분명히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뒀는데……. 이제 어찌지?”

“의 울먹이는 말투의 친구를 무니는 격정스레 쳐다

다봤다. 물론 무니는 난다가 그 공책을 읽고 또 읽어서 내용을 거의 다 외운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떠나서 난다네 할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품이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연금술사는 팔까지 올리며 말했다. 무니는 그의 손에서 등불을 빼앗아 들고는 온 몸을 뒤져봤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만 술병만이 양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난다의 양어깨가 다시 축 늘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등하기 힘들겠는걸.’ 무니는 생각했다.

“당신 정말 그 책 본 적 없어? 그럼 몸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

“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지만, 확실히 맹랑한 꼬마로군.”

“꼬마라고 하지 마!”

“아무튼 그래, 좋다. 뒤져보려무나.”

<3부 끝>

###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사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 사찰양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땅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한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악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신 010-3406-1080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